

“도크에서 기다린다. 거제로 달려와 달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 ... “구사대·공권력 동원 시 총력투쟁”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대우조선 현장에서 하청노동자 임금 원상회복 끝장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가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는 6월 24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서문에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총파업 투쟁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 노조 조합원과 경남 시민사회단체·정당,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참가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참혹한 야만의 시대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23일째 전면파업을 전개하고 있다”라며 “원청과 산업은행은 구사대와 공권력을 동원해 사태를 종결하려는 위협적인 행동을 중단하라”라고 경고했다.

윤장혁 노조 위원장은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이 사태를 파행으로 내몰고 방치하면, 노조는 이 투쟁을 거제를 넘는 전국 투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결의했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임금 원상회복 30% 인상과 단체협약 체결 등 요구하며 6월 2일 파업을 시작했다. 6월 22일 조합원 일곱 명이 옥포



조선소 1 도크 선박으로 거점을 옮기고 끝장 투쟁에 나섰다.

유취안 부지회장은 유언장을 작성한 뒤 용접으로 1㎡의 케이지를 만들고 시너 통을 들고 들어가 용접으로 문을 잠갔다.

지회는 지난 5년간 삭감한 임금 30% 회복을 주요 요구로 내세워 집단 교섭 등을 벌였지만, 하청사들은 권한이 없다며 교섭과 책임을 회피 중이다. 지회가 원청인 대우조선과 대우주산업은행이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는 이유다.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은 투쟁사를 통해 “노동자는 자본의 논리에 설득당해 안주하면 안 된다”라며 “유취안 부지회장이 스스로 가둔 감옥에서 들고 있는 시너 통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자, 현장에서 차별과 고통받는 노동자를 위한 무기이자, 새로운 날을 바라는 희망이다”라고 역설했다.

김형수 지회장은 “지회 승리가 금속노조와 노동계급의 승리가 되도록 함께해달라” 라면서 “민주노총 노동자들과 양경수 위원장은 거제로 달려와 달라. 여기에 전태일이 있고 민주노총의 정신이 있다”라고 호소했다.

안석태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투쟁사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위해 나서야 한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을 위해 나서야 한다”라며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함께 투쟁하는 것이 금속노조의 역할이다. 승리를 위해 단결하자”라고 외쳤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장은 연대사를 통해 “동지들을 박멸하고 숨이 난다는 자본의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달려왔다” 라면서 “윤석열 정권에 분명히 경고한다. 목숨 걸고 투쟁하는 내 동지들을 공격한다면, 민주노총의 힘으로 단호하게 맞서겠다”라고 결의했다.

결의대회 발언을 마친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지역 본부장과 김형수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장은 1 도크 투쟁 현장으로 갔다. 윤장혁 위원장은 유취안 부지회장의 손을 부여잡고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불꽃노조, 삼성SDI지회 인사드린다”

노조 충남지부 삼성SDI지회 출범 ... “더 나은 삶 위해 민주노조로 모였다”

삼성SDI 노동자들이 삼성에 또 하나의 민주노조를 세웠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삼성SDI지회가 6월 24일 천안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회 출범을 선포했다. 삼성SDI는 테슬라 전기자동차 등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연구·개발하는 공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민주노총 충남본부, 금속노조 충남지부와 지회,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아산위원회 대표들과 간부들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박성철 지회 준비위원장은 설립 경과보고를 통해 “2021년 11월 첫 지회 가입 홍보 선전전이 생각난다. 정말 뿌듯하고 기뻐 눈물이 났다”라며 “금속노조 충남지부가 연대하고 계속 선전전하면서 얻은 용기로 동료들에게 노동조합을 알려주니까 하나둘씩 모여 출범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박성철 준비위원장은 “저 스스로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지회 조직이 안 될 줄 알았다. 지역에서 도와주고 동료들이 있어서 할 수 있었다”라면서 “민주노총을 선택한 내 선택이 정말 옳았다, 잘했다는 뿌듯함을 느낀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박성철 준비위원장은 3년 전 일하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현실에 의문을 품고 노동조합을 알아보다 한국노총과 상담했으나 한계를 절감



했다. 박 준비위원장은 2020년 충남지부와 상담하면서 동료들을 설득하고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했다. 2020년 10월 충남지부가 가입 홍보 선전전을 시작하고, 2021년 11월부터 함께 선전전과 조직사업을 시작해 오늘 출범했다.

노조 충남지부 삼성SDI지회는 기자회견에서 정기백 지회 준비위원이 발표한 설립 선언문에서 “삼성SDI의 모든 동료에게 불꽃 노동조합이 투쟁으로 인사드린다.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민주노조 깃발 아래 모였다”라며 “친구와 가족 모두에게 자랑할 수 있는 삼성SDI 노동조합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지회는 “삼성SDI 현장에 반강제 연장 야간근로가 넘쳐나고, 일상적인 역근무 문제와 인력 부족 사태로 노동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라면서 “불공정한 인사제도, 불투명한 임금제도, 평등하지 않은 평

가제도의 폐해가 엄청나다. 회사는 부당한 제도들로 노동자를 줄 세우며 맹목적인 충성만을 강요하고 있다. 권위적 사내 문화는 고과권자들의 일방 평가라는 절대무기로 유지 강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회는 “2021년 삼성SDI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라는 경이로운 업적을 이뤘다. 우리들의 불만과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깃발로 모였다”라며 “불합리하고 일방 희생만 강요받는 노사관계를 바꾸기 위해, 함께 이룬 성과를 노동자와 임원들이 대등하게 받을 수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6월 24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지부 삼성SDI지회를 출범한다”라고 선언했다.

정용재 금속노조 충남지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삼성SDI 노동자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받는 노예가 아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한다”라며 “삼성SDI 노동자들은 불법 무노조 경영을 박살 내고, 보란 듯이 강고한 투쟁을 선택했다. ‘한다면 한다’는 금속노조는 삼성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권리 쟁취를 위해서 삼성SDI 동지들과 삼성을 바꿔내는 투쟁을 준비하겠다”라고 결의했다.